河西 金麟厚의 독서관에 관한 연구

-『하서전집』의 인용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im Inhue's View of Reading: Through the Analysis of Reference Books in *Haseo-Chunjib*

안 현 주(Hyeonju Ahn)*

〈 목 차 〉

Ⅰ. 緖 論
Ⅱ. 인용문헌의 조사
Ⅲ. 인용문헌의 분석
1. 경부(經部)의 분석
2. 사부(史部)의 분석
3. 자부(子部)의 분석
4. 집부(集部)의 분석
Ⅳ. 하서의 독서관
Ⅴ. 結 論

초 록

이 연구는『하서전집』의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김인후의 독서관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최소한 123종의 책을 독서했으며,『사서삼경』,『사기』,『한서』,『장자』,『고문진보』,『초사』,『문선』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김인후는 16세기 선비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독서범주를 뛰어넘은 다양한 독서, 시대상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독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독서관은 성리학의 경서를 중요시 여겼으며 또한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방대한 저술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주제어:『하서전집』, 김인후, 독서관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Kim Inhue's view of reading through the analysis of reference books in *Haseo-Chunjib*(하서전집). As the result, he had read 123 different books ar least. He had quoted frequently *Sìshū Sānjing*(사서삼경), *Shǐjì*(사기), *Hànshū*(한서), *Zhuāngzǐ*(장자), *Gǔwénzhēnbǎo*(고문진보), *Chǔcí*(초사), *Wénxuǎn*(문선). He had read books beyond the contemporary(sixteen centurtry) scholar's common list, and had enjoyed reading over the boundaries of stereotyped idea. While he had emphasized on the scripture of Confucian, had earned more knowledges for usefulness and the bases of scholarly writings by reading a wide spectrum of books.

Key Words: *Haseo-Chunjib*, Kim Inhue, View of Reading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treenbird@hanmail.net)
・접수일: 2008년 8월 22일 ・최초심사일: 2008년 8월 26일 ・최종심사일: 2008년 9월 22일

Ⅰ. 緖 論

16세기의 조선은 개국한지 1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었다. 태종대에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세종대에 이르러 30여년 통치기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내실을 기하고 통치규범의 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림파와 훈구파의 갈등이 네 번의 사화로 표출되었다. 이 시기를 살다 간 호남의 대표적 유학자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많은 시를 남겼다. 그 시들은 하서의 독서의 범위와 경향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하서(1510-1560년)는 중종 5년에 전라남도 장성현 대맥동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후지(厚之)이고, 호는 하서(河西),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그는 22세에 성균관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24세에는 성균관에서 퇴계 이황과 함께 공부하며 절친한 교분을 쌓았다. 1540년 문과에 급제한 하서는 그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받았고, 곧이어 홍문관 정자(正字)에 제수되었다. 1543년 가을에는 박사겸세자시강원설서(博士兼世子侍講院說書)가 되어 당시 세자로 있던 인종의 스승이 되었다. 하서는 인종이 즉위하기 전 약 1년 동안 측근에서 보필하였다. 그 시절 하서는 매달 적어도 열흘 이상을 궁궐에 머물면서 인종의 학업을 도와주었다.[1] 시강원 시절 인종은 하서를 믿고 따르며, 「주자대전(朱子大全)」 한질을 선사하였고 손수 묵죽도를 그려서 하사하였다. 그 후 1544년 가을, 중종이 승하하자 인종이 즉위하였고 그 당시 하서는 전라도 옥과현감으로 재임중이었다.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인종이 승하하자 하서는 실망과 좌절로 인해 다시는 벼슬길이 나아가지 않았다. 해마다 인종의 기일이 되면 하서는 집의 남쪽 산중에 들어가 술 한 잔 마시고 한 번씩 통곡하며 온 밤을 새우고 돌아왔다고 한다.[2] 하서는 인종이 승하한 후 술과 벗하며 시를 지으며 후학을 기르며 소일하다가 세상을 하직하였다. 하서의 시들을 통하여, 그는 이황, 노수신, 유희춘, 양산보, 이 항, 임억령 등과 절친한 우정을 나누었으며, 유명한 학자들뿐만 아니라 시골의 농부들과 승려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전에 저술한 시문을 모아 후손들이 「하서전집(河西全集)」을 간행하였다.

그 동안 전통적 독서론[3]이나 17·18세기 유학자나 문인들의 독서관[4]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

1) '效邕叟 戒子歌用其韻,' 「河西全集」 상, pp.563-565.
2) '墓誌銘,' 「河西全集」 하, p.221.
3) 김중권,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32집(2005), pp.556-574.; 김영, "실학파의 독서관," 독서연구, Vol.10(2003), pp.1-18.; 김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서울 : 집문당, 1993).; 김상호, "晩翁 徐命瑞의 讀書段階論 比較硏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22(1995), pp.277-297.; 이종호, "退溪學團의 讀書論,"退溪學, Vol.5 No.11993), pp.245-253.
4) 김풍기, "遊齋 李玄錫의 독서관과 그 의미," 洌上古典硏究, v.22, 2005, pp.57-73.; 홍선표 등,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실태(서울 : 혜안, 2006).; 김윤희, 李德懋의 讀書論 硏究(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한문교육전공, 2004).

으나, 16세기 학자들의 개인의 독서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서전집」[5]에 실려 있는 시들의 인용문헌을 살펴봄으로서 하서의 독서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인용문헌의 조사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조선의 유학자이면서 문장가이다.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는 문묘에 배향된 대유학자였고, 인종(仁宗)의 스승이었으며,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1500여수의 시를 지었다.

하서의 문집인 「하서전집(河西全集)」은 본집(本集) 12권, 부록4권, 속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권 1 : 부(賦) 13편, 사(辭) 5편
권 2 : 오언고시(五言古詩) 72수
권 3 : 오언고시(五言古詩) 95수
권 4 : 칠언고시(七言古詩) 68수
권 5 : 오언절구(五言絶句) 351수
권 6 : 칠언절구(七言絶句) 195수
권 7 : 칠언절구(七言絶句) 270수
권 8 : 오언율시(五言律詩) 134수
권 9 : 오언율시(五言律詩) 124수
권 10 : 칠언율시(七言律詩) 211수, 오언배율(五言排律) 25수, 칠언배율(七言排律) 6수

합계 : 1569편을 대상으로 인용문헌[6]을 조사하여 인용문헌을 통한 그의 독서관을 분석하였다. 다음 〈표 1〉에서는 인용문헌을 조사하여 서명의 자모순으로 목록하였으며, 분류는 사분법(四分法) 분류체계[7]를 이용하였다.

---

5) 본고에서 「河西全集」은 1988년에 河西記念事業會에서 간행한 國譯 「河西全集」(신호열 번역, 全3冊)을 사용하였다.

6) 국역 「河西全集」에는 번역할 당시 하서의 글마다 인용문헌을 제시해 놓았다. 본고에서 인용문헌이라 함은 국역 「河西全集」에 명시된 인용문헌을 지칭한다.

7) 분류를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文淵閣四庫全書(영인) 제3책(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1983).;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출판과 연구자료 집성 -한국편-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8).;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한국편-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1).; 오만종 등, 중국 고대 학술의 길잡이 -〈漢書 · 藝文志〉 註解(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홍선표 등,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실태(서울 : 혜안, 2006).;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index.jsp〉 (인용 2008. 2월-8월)

〈표 1〉 인용문헌의 조사

서 명	저 자	분 류	인용횟수
가어(家語)	王肅(196-256)	子	14
계신잡식(癸辛雜識)	周密(1232-1298)	子	1
고문진보(古文眞寶)	黃堅(明)	集	92
고승전(高僧傳)	慧皎	子	2
곡량전(穀梁傳)	穀梁俶(戰國)	經	1
공양전(公羊傳)	公羊高(戰國)	經	2
공총자(孔叢子)	孔鮒(秦末漢初)	子	3
관자(管子)	管仲(?-B.C.645)	子	1
구당서(舊唐書)	劉昫(後晉) 등	史	3
구지필기(仇池筆記)	蘇軾(1036-1101)	集	1
국어(國語)	左丘明(春秋)	史	7
귀곡자(鬼谷子)	鬼谷子	子	1
극담록(劇談錄)	康駢	集	1
남사(南史)	李延壽	史	6
노자(老子)	老聃(春秋)	子	7
논어(論語)	孔子의 제자 등	經	116
논형(論衡)	王充(27-97)	子	1
담원(談苑)	孔平仲(宋)	子	1
당서(唐書)	趙瑩(後晉) 등	史	17
당시기사(唐詩記事)	計有功	集	3
당유함(唐類函)	兪安期	子	1
당회요(唐會要)	王溥(宋)	史	1
대금국지(大金國志)	宇文懋昭	史	1
대학(大學)	孔子(B.C.552-479)編?	經	8
동파지림(東坡志林)	蘇軾(1036-1101)	集	1
마하반야경(摩訶般若經)	未詳	子	1
맹자(孟子)	孟軻(B.C.372?-289?)	經	78
목천자전(穆天子傳)	郭璞(276-324)	子	2
몽계필담(夢溪筆談)	沈括(1031-1095)	子	2
문선(文選)	簫統(501-531)	集	33
문심조룡(文心雕龍)	劉勰(465-532)	集	1
문중자(文中子)	王通(隋)	子	2
박물지(博物志)	張華(232-300)	子	7
백호통(白虎通)	班固(32-92)	子	1
법언(法言)	楊雄(B.C.53-A.D.18)	子	1
법화경(法華經)	未詳	子	1
본초(本草)	唐愼徽(宋)	子	3
북사(北史)	李延壽(唐)	史	1
사기(史記)	司馬遷((B.C.145-86)	史	70
사물감주(事物紺珠)	황정일(明)	子	1
산해경(山海經)	禹王(夏)	集	3
삼국사기(三國史記)	金富軾(高麗)	史	1

서 명	저 자	분 류	인용횟수
삼국지(三國志)	陳壽(233-297)	史	4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羅貫中(1330?-1400)	集	1
삼진기(三秦記)	辛氏	子	3
삼포결록(三輔決錄)	趙岐(漢) 撰	子	1
삼포황도(三輔黃圖)	闕名(漢)	子	3
상마경(相馬經)	未詳	子	1
서경(書經)	未詳	經	84
서경잡기(西京雜記)	葛洪(晉)	集	3
서언고사(書言故事)	胡繼宗(宋)編	子	1
서역기(西域記)	玄奘(唐)	集	1
석림연어(石林燕語)	葉夢得(1077-1148)	子	1
석씨요람(釋氏要覽)	道誠(宋)	子	1
선전습유(仙傳拾遺)	杜光庭(850-933)	子	1
설원(說苑)	劉向(B.C.79-?)	子	1
세설(世說)	劉義慶(403-444)	集	12
세시잡기(歲時雜記)	呂原明(北宋)	子	3
소학(小學)	劉子澄(宋)	經	2
속신선전(續神仙傳)	沈汾 撰	子	1
속제해기(續齊諧記)	吳均(梁)	集	3
송사(宋史)	脫脫(1314-1388)	史	7
송서(宋書)	沈約(441-513)	史	2
수서(隋書)	魏徵(580-643) 등	史	2
수신기(搜神記)	干寶(東晉)	集	4
수신후기(搜神後記)	陶淵明(365-427)	集	1
순자(荀子)	荀況(B.C.298-238)	子	8
술이기(述異記)	任昉(南朝 梁)	子	3
습유기(拾遺記)	王嘉(前秦)	子	1
승암시화(升菴詩話)	楊愼(明) 撰	集	1
시경(詩經)	孔子(B.C.552-479)編	經	227
시인옥설(詩人玉屑)	魏慶之 編著	集	1
신선전(神仙傳)	葛洪(283-343)	子	2
십팔사략(十八史略)	曾先之(宋末元初)	史	1
안자춘추(晏子春秋)	晏嬰((?-B.C.500)	史	1
야객총서(野客叢書)	王楙(宋)	子	1
양경신기(兩京新記)	韋述(唐)	子	1
여씨춘추(呂氏春秋)	呂不衛(?-B.C.235)	史	1
열녀전(列女傳)	劉向(前漢)	子	7
열반경(涅槃經)	未詳	子	2
열선전(列仙傳)	劉向(前漢)	子	2
열자(列子)	列御寇(戰國)	子	19
염철론(鹽鐵論)	桓寬(漢)	子	2
예기(禮記)	戴聖(前漢)	經	73
오대사(五代史)	歐陽修(1007-1072)	史	2

서 명	저 자	분 류	인용횟수
운급칠첨(雲級七籤)	張君房(宋)	子	3
유괴록(幽怪錄)	牛僧孺(唐)	子	1
유양잡조(酉陽雜俎)	段成式(唐)	子	4
의례(儀禮)	周公(周)	經	1
이문집(異聞集)	陳翰(唐)	子	1
이아(爾雅)	周公(周)	經	6
장자(莊子)	莊周(B.C.369-286)	子	90
전국책(戰國策)	劉向(前漢)	子	3
제왕세기(帝王世紀)	皇甫謐(晋)	史	4
조정사원(祖庭事苑)	睦庵善卿(宋)	子	1
좌전(左傳)	左丘明(春秋)	經	34
주례(周禮)	周公(周)	經	6
주역(周易)	未詳	經	75
주자어류(朱子語類)	黎靖德(南宋)	子	1
중용(中庸)	子思?	經	34
진서(晉書)	房玄齡(570-648) 등	史	41
집운(集韻)	丁度(北宋) 등	經	1
책부원귀(册府元龜)	王欽若(北宋)	子	1
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	王仁裕(880~956)	集	3
천중기(天中記)	陳耀文(明) 撰	子	1
초국선현전(楚國先賢傳)	張方	史	1
초사(楚辭)	屈原(楚) 등	集	70
춘추(春秋)	孔子(B.C.552-479)	經	3
출요경(出曜經)	未詳	子	1
침중기(枕中記)	沈旣濟(唐)	集	1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樂史(宋) 撰	史	1
태현경(太玄經)	楊雄(漢)	子	1
통감(通鑑)(자치통감)	司馬光(1019-1089)	史	4
포박자(抱朴子)	葛洪(283-343)	子	6
풍속통(風俗通)	應劭(漢)	史	3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	班固(32-92)	史	1
한비자(韓非子)	韓非(B.C. 280-233)	子	8
한서(漢書)	班固(32-92)	史	56
한시외전(韓詩外傳)	韓嬰(漢)	經	2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宗懍(梁)	子	6
회남자(淮南子)	劉安(B.C.179-123)	子	12
효경(孝經)	孔子(B.C.552-479)	經	1
후한서(後漢書)	范曄(398-446)	史	26

이상으로 「하서전집(河西全集)」에 나타난 인용문헌을 조사한 결과 123종의 책을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인용한 순서대로 열거 해 보면, 「시경(詩經)」(227회), 「논어(論語)」(116회),

「고문진보」(古文眞寶)(92회), 「장자」(莊子)(90회), 「서경」(書經)(84회), 「맹자」(孟子)(78회), 「주역」(周易)(75회), 「예기(禮記)」(73회), 「사기(史記)」(70회), 「초사(楚辭)」(70회), 「한서(漢書)」(56회), 「진서(晉書)」(41회), 「중용(中庸)」(34회), 「좌전(左傳)」(34회), 「문선(文選)」(33회), 「후한서(後漢書)」(26회), 「열자(列子)」(19회), 「당서(唐書)」(17회), 「가어(家語)」(14회), 「세설(世說)」(12회), 「회남자(淮南子)」(12회) 등이다. 가장 많이 인용한 책 21종 중 경부(經部)에 속한 책은 8종이고, 사부(史部)에 속한 책은 5종이며, 자부(子部)에 속한 책은 4종이고, 집부(集部)에 속한 책은 4종이다. 경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사부, 자부, 집부에 속한 책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는 하서가 경부, 사부, 자부, 집부에 속한 책을 고루 독서했음을 보여준다.

Ⅲ. 인용문헌의 분석

이 장에서는 〈표 1〉에서 조사한 123종의 책을 경부, 사부, 자부, 집부로 나누어 인용문헌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1. 경부(經部)의 분석

〈표 1〉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경부에 속하는 인용문헌은 19종이다. 경부에 속한 인용문헌의 인용횟수와 간략해제[8]를 〈표 2〉로 나타내었다.

하서는 그의 시들에서 경서의 구절들을 즐겨 인용하였는데, 경부에 속한 책들 중에서 「시경(詩經)」(227회), 「논어(論語)」(116회), 「서경(書經)」(84회), 「맹자(孟子)」(78회), 「주역(周易)」(75회), 「예기(禮記)」(73회), 「중용(中庸)」(34회), 「좌전(左傳)」(34회), 「대학(大學)」(8회) 순으로 인용하였다.

「시경(詩經)」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소아(小雅)(55회), 대아(大雅)(39회), 위풍(衛風)(19회), 주남(周南)(16회)순으로 인용하였다. 하서는 13세 때에 「시경(詩經)」에 침잠하여 국풍의 경우 대주(大註)와 소주(小註)까지 천 번이나 읽었다.[9] 또한 「시경(詩經)」을

8) 본고에서 인용문헌들의 간략해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해제를 위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홍선표 외,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실태(서울 : 혜안, 2006).; 심경호 외, 세계의 고전을 읽는다 1-동양 문학편(서울 : 휴머니스트, 2005).; 김장환 외,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4-문학 하(서울 : 휴머니스트, 2006).; 정재서 외, 세계의 고전을 읽는다 2-동양 교양편(서울 : 휴머니스트, 2005).; 국가지식포털 홈페이지〈http://www.knowledge.go.kr/main.jsp〉(인용 2008. 2월-8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해제〈http://kyujanggak.snu.ac.kr/index.jsp〉(인용 2008. 2월-8월).; 영남대학교 도서관 〈http://libs.yu.ac.kr〉(인용 2008. 7월-8월); 윤보경. 唐代 「枕中記」 硏究(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9) '연보(年譜)', 「河西全集」 下, p.326.

읽고 '독주남(讀周南)', '독소남'(讀召南), '독위풍(讀衛風)', '독정풍(讀鄭風)', '독관저편(讀關雎篇)' 등의 시를 지어 그의 생각을 나타내었다. 하서는 「시경(詩經)」의 구절들을 잘 음미하여 그것의 참된 의미와 의의를 궁구하여 기상을 바로잡고, 인간 본연의 성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표 2〉 경부에 속한 인용문헌

서명(인용횟수)	간략해제
시경(227)	중국최초의 시가총집. 서주(西周) 초기부터 춘추 중기까지의 약 500여년간 민간이나 사대부가 창작하였거나 궁중의 의식이나 제사에서 연주된 305편의 시를 공자가 편찬했다고 함. 15개의 국풍과 아(雅)와 송(頌)으로 이루어져 있음
논어(116)	공자의 제자와 후학들이 공자의 언행과 사상을 기록한 유교의 경전. 20편으로 구성됨
서경(84)	중국 고대 문화의 원류를 담고 있는, 역사적 문건이자 정치강령의 책으로서, '서(書)'또는 '상서(尙書)'라고 함. 각 편에는 서(序)가 있어서 각 편이 지어진 경위를 밝혀 놓았음
맹자(78)	전국시대에 맹가가 지은 것으로 7편으로 구성된 유교의 경전
주역(75)	사서오경 중의 하나로서, 원래 점복서였는데 유가에 의해 철학적, 도덕적 해석이 가해지고 경서로 중시됨
예기(73)	고대의 예제(禮制)와 예론(禮論)을 모은 사서오경 중의 하나. 49편으로 구성됨
중용(34)	1권으로 된 유교의 경전으로 본래는 「예기」의 한 편임
좌전(34)	「춘추좌씨전」이라고도 함. 공자가 찬술한 「춘추」에 좌구명이 주해한 책
대학(8)	본래는 「예기」의 한 편이었고, 편찬자가 확실하지 않음.사서 중의 하나임
이아(6)	3권20편으로 구성된 경전의 훈고를 위한 사전임.당송에 이르러 13경 중의 하나가 됨
주례(6)	서주의 봉건제도를 이상화하여 지은 관제(官制)이며, 유가의 정치이념이 내포되어 있음
춘추(3)	편년체 사서로서 유교의 5경 중의 하나임. 노의 은공부터 애공까지 242년간의 역사를 기록함
공양전(2)	「춘추공양전」 또는 「공양춘추」라고도 하며, 「춘추」 삼전 가운데 하나임
소학(2)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수신서. 유자징이 주희의 지시에 따라 편찬함
한시외전(2)	전한의 한영이 편찬하였는데 「시경(詩經)」의 해설서이며 당시 잡다하게 존재하는 고사, 고언을 「시경(詩經)」의 장구사이에서 설명하였음
곡량전(1)	「춘추」 삼전 중의 하나이며, 곡량적이 지은 「춘추」에 대한 해설서
의례(1)	17권의 경서로 주대(周代)의 예의 실제를 명기한 책
집운(1)	중국의 운서로서, 「예부운략(禮部韻略)」과는 반대로 절운계(切韻系) 운서의 체재에 따르면서 다시 그것을 해박(該博)하게 하였음
효경(1)	효를 도덕의 원리로 하고, 천자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효도를 구별하여 설명함.

즉 시를 읽고 음미하여 그 의의를 깨달아 인의예지를 체득하여 성정을 다스리고 풍속을 교화하여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공리적 효용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0]

「논어(論語)」에서는 선진(先進)편(12회), 옹야(雍也)편(12회), 자공(子貢)편(10회), 이인(里仁)편(10회) 순으로 인용하였다. 하서는 "몸 닦는 도와 정사하는 방법은 「논어(論語)」, 「맹

10) 具仕會,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제3집 : 財團法人 河西學術財團, 2005, pp.424-425.

자(孟子)」, 「시경(詩經)」, 「서경(書經)」에 갖추어져 있으나 「논어(論語)」보다 간절한 것이 없다"[11]라고 하였다.

「서경(書經)」에서는 요전(堯典)(10), 익직(益稷)(9), 우공(禹貢)(9), 열명(說命)(8)순으로 인용하였다. 하서는 「서경(書經)」을 읽고 정사의 치란(治亂)의 실제를 상고하였다.[12] 「맹자(孟子)」에서는 이루(離婁)(16회), 진심(盡心)(14회), 고자(告子)(12회), 만장(萬章)(12회)순으로 인용하였고, 「주역(周易)」에서는 계사전(繫辭傳)[13](23회), 건(乾)(15회), 곤(坤)(9회)순으로 인용하였다. 하서는 「주역(周易)」에 조예가 깊어 먼저 정문(正文)을 익숙히 읽어 연구하고 정주의 전을 참고하였다.[14] 「예기(禮記)」에서는 월령(月令)(9회), 단궁(檀弓)(8회), 제의(祭義)(8회), 악기(樂記)(7회)순으로 인용하였다.

비록 인용횟수는 적지만, 하서는 평생 동안 「대학(大學)」에 공력을 쏟았다. 젊어서 단정히 앉아 읽기를 천 번에 이르고도 그치지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한권의 책으로서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의 공력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효험에 있어 본말(本末)이 자세히 갖춰져 있고 조리가 분명하니, 학자가 이것을 버리면 규모를 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15]

그 밖의 「공양전(公羊傳)」,「곡량전(穀梁傳)」, 「의례(儀禮)」, 「집운(集韻)」, 「효경(孝經)」, 「한시외전(韓詩外傳)」, 「춘추(春秋)」, 「소학(小學)」 등의 독서를 통해 시에 인용하셨다.

하서는 경부에 속하는 19종을 인용하였으며, 그 중에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또한 경서를 읽을 때에는 여러 차례 정독하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였다.

2. 사부(史部)의 분석

〈표 1〉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사부에 속하는 인용문헌은 26종이다. 사부에 속한 인용문헌의 인용횟수와 간략해제를 〈표 3〉으로 나타내었다.

사부에 속하는 책들 중에서 「사기(史記)」, 「한서(漢書)」, 「진서(晉書)」, 「후한서(後漢書)」, 「당서(唐書)」, 「송사(宋史)」, 「국어(國語)」 순으로 인용하셨다. 이들 중에서 「사기(史記)」(70회), 「한서(漢書)」(56회)는 경서들과 비슷한 비중으로 인용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부터 한나라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도 「구당서(舊唐書)」, 「남사(南史)」, 「당회요(唐會要)」, 「대금국지(大金國志)」, 「북

11) '上李太守書', 「河西全集」 下, p. 17.
12) '가장(家狀)', 「河西全集」 下, p.171.
13) '계사전'은 8괘에 대해, 복희씨라는 인물이 하늘과 땅, 동식물과 인간의 신체 등의 경험적 세계를 모사한 상징체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복희, 신농, 황제, 요, 순 등에 의해 고대문화가 발달되어 온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 정재서 외, 세계의 고전을 읽는다 2 - 동양 교양편(서울 : 휴머니스트, 2005), pp.256.
14) '가장(家狀)', 「河西全集」 下, p.171.
15) '가장(家狀)', 「河西全集」 下, p.171.

사(北史)」,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지(三國志)」, 「송서(宋書)」, 「수서(隨書)」, 「십팔사략(十八史略)」, 「안자춘추(晏子春秋)」, 「여씨춘추(呂氏春秋)」, 「오대사(五代史)」,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통감(通鑑)」, 「풍속통(風俗通)」, 「한무제내전(漢武帝內傳)」 등을 인용하였다. 역대정사(正史)들을 중점적으로 독서하고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사부에 속한 인용문헌

서명(인용횟수)	간략해제
사기(70)	전한의 사마천이 황제에서 한 무제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여 편찬한 최초의 기전체 역사서
한서(56)	후한의 반표, 반고, 반소 등이 편찬한 전한 고조에서부터 왕망의 신에 이르기까지 229년간의 역사서
진서(41)	서진, 동진 및 십육국 역사를 서술한 관찬 기전체 사서
후한서(26)	범엽(398-445)이 지은, 후한대의 역사를 서술한 기전체 정사
당서(17)	중국 정사인 25사의 하나로, 당조를 건설한 618년부터 907년까지를 기록한 기전체 사서
송사(7)	원대 관수로 편찬한 송대(남송포함, 960-1279)의 국사
국어(7)	춘추전국시대의 역사를 국별로 기록한 책
남사(6)	당의 이연수가 남조 송, 제, 양, 진의 4개 왕조 170년간의 사사를 기술한 기전체 사서
삼국지(4)	위·촉·오 삼국시기의 사적을 기록한 기전체 역사서
통감(4)	「자치통감」을 가리킴. 송의 사마광이 지은 편년체 사서
제왕세기(4)	삼황시대부터 진, 한 및 조위에 이르기까지 제왕의 사적 및 호구 등을 기술한 책
구당서(3)	유구 등이 편찬한 당나라에 관한 기전체 사서
풍속통(3)	후한 말의 응소가 편찬한 저서. 한대의 풍속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임
송서(2)	남조 양의 심약이 남조 송의 사적을 찬술한 기전체 사서
수서(2)	25사의 하나로 수 문제 양견이 건국한 581년부터 618년까지를 다룬 기전체 사서
오대사(2)	25사의 하나로 오대십국시대인 907년부터 960년까지를 기록한 기전체 사서
당회요(1)	당대의 제도와 고사에 대한 정서(政書)
대금국지(1)	40권으로 이루어진 금나라의 역사서
북사(1)	당대의 이연수가 북조의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 수 등 6개 왕조 233년간의 역사를 기술한 기전체 사서
삼국사기(1)	고려의 김부식이 지은 삼국의 역사서
십팔사략(1)	「사기」 이후 17개 정사에 송대의 사료를 첨가한 역사서
안자춘추(1)	춘추시대 제 경공(B.C.548-490)과 재상이었던 안영(?-BC500)이 대화형식으로 이상적인 정치를 논한 책.
여씨춘추(1)	26권의 잡가서로, 여씨는 여불위를 가리킴
초국선현전	총서 「설부」에 들어 있는 책 중의 하나
태평환우기(1)	중국 송나라 시대의 지지인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지임. 979년 송이 천하를 통일한 후 그 영역과 그들 주변의 민족을 설명하기 위해 편찬됨
한무제내전(1)	한 무제에 관한 일을 기록, 위작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3. 자부(子部)의 분석

〈표 1〉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자부에 속하는 인용문헌은 58종이다. 자부에 속한 인용문헌의 인용횟수와 간략해제를 〈표 4〉로 나타내었다.

하서는 자부에 속하는 다양한 책을 인용하여 시를 지었다. 그 중에서도 「장자(莊子)」[16]는 90회 인용하였다. 「장자(莊子)」 중에서 '내편'에 속하는 소요유(26회)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그 뒤를 이어 제물론(12회), 대종사(9회)를 인용하였다. 소요유에 나오는 커다란 물고기 곤(鯤)이 대붕(大鵬)이 되어 구만리를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누구라도 자유를 생각할 수 있다.

〈표 4〉 자부에 속한 인용문헌

서명(인용횟수)	간략해제
장자(90)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내편(內篇)' 7편만 장주(莊周)(B.C. 369-286)가 지었고 나머지는 그의 제자들의 저술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열자(19)	철학서로 노자보다 앞선 선진의 도가사상가인 전국시대 열어구의 저작으로 전해짐
가어(14)	공자와 그 제자들의 문답을 기록한 삼국시대 위나라의 왕숙의 위서
회남자(12)	제가의 학설을 종합적으로 수록함
한비자(8)	법치주의를 주창한 한비와 그의 제자들의 논지를 서술한 책
순자(8)	전국시대 순황이 편찬하였으며, 32편의 철학서임
노자(7)	노자의 「도덕경」을 말 함. 도가사상의 대표저서
박물지(7)	박물자는 10권1책으로 구성되오 있고, 역사상의 기문이담(奇聞異談)을 집록한 책으로 진(晉)의 장화(張華)가 편찬한 책
열녀전(7)	선진시대부터 한나라까지 여성의 수양을 목적으로 부인들의 전기를 모은 책
형초세시기(6)	남북조시대 형초(호북과 호남일대)지방의 농민의 연중행사를 월별로 기록하고 설명함
포박자(6)	동진의 갈홍이 편찬한 것으로 내용은 도가와 유가에 관한 것이고, 고대 과학기술의 좋은 사료가 됨
유양잡조(4)	당나라 시대의 괴담·도서·의식(衣食)·풍습·동식물·의학·종교·인사(人事) 등에 관한 것을 탁월한 문장으로 흥미롭게 기술한 책. 당나라 때의 사회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
공총자(3)	7권 23편의 공자 후손들의 언행록으로 진말한초 때의 사람 공부가 지었음
본초(3)	「경사증류대전본초(經史證類大全本草)」의 약칭
삼진기(3)	총서 「설부」에 들어 있는 책 중의 하나
삼포황도(3)	총서 「설부」에 들어 있는 책 중의 하나
세시잡기(3)	
술이기(3)	북제의 무성연간과 하청연간의 일들을 기록. 남조의 임방이 편찬하였다고 하는데 장화의 「박물지」처럼 모아 만든 것이어서 진위가 의심되는 책
운급칠첨(3)	123권의 도교서목으로, 그 중에 도가 가르침의 종지(宗旨)와 신선진인의 명부를 담고 있음. 송 이전 도장(道藏)의 주요내용을 집대성하였음
전국책(3)	전국시대 유세가의 변설이나 제왕과의 대화, 각 국의 고사들을 모은 책
고승전(2)	동한부터 남조 양나라초에 이르는 승려 257명의 전기를 수록한 책
목천자전(2)	「주왕전」이라고 함. 주의 목왕이 서쪽으로 곤륜산까지 원정하여 서왕모를 만났다는 내용
몽계필담(2)	북송의 심괄이 편찬한 책.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이 상당부분 있음
문중자(2)	수나라의 왕통이 찬하였다고하나 분명하지 않다. 전(全) 10권으로 왕도(王道)·천지(天地)·사군(事君)·주공(周公)·문역(問易)·예악(禮樂)·술사(述史) 등의 각 편이 있음
신선전(2)	도가전기(道家傳記)로 동진의 갈홍이 편찬하였는데, 전설상의 신선 84명을 기록하였음
열반경(2)	열반을 중심으로 설한 불경. 일체중생의 성불가능성을 제시하였음

16) 「장자」는 3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내편(內篇)' 7편만 장주(莊周)(B.C. 369-286)가 지었고 나머지는 그의 제자들의 저술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명(인용횟수)	간략해제
열선전(2)	신선고사의 총집으로서, 그 중 인간과 신의 연애고사와 유선고사(遊仙故事)는 중국 지괴소설(志怪小說)의 전형적인 제재임. 진대(晉代) 이후의 신선고사는 대부분 이 책에 근거했으며, 역대 문인들이 전고로 인용한 고사도 많아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함
염철론(2)	전한 때에 황제의 명으로 상홍양 등 정부 당국자와 천거된 60여명의 문사들이 한데 모여 소금과 철, 술의 전매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한 책
계신잡식(1)	총서 설부(說郛에 들어 있는 주밀이 저술한 책
관자(1)	제자서로 춘추시대의 관중이 저술했다고 하는데, 사상사, 경제사, 농업 기술사 등에 귀중한 자료가 됨
귀곡자(1)	전국시대 초나라의 사상가인 귀곡자가 저술한 책이나 위서라고 보는 견해가 많음.
논형(1)	후한대 왕충이 지은 철학서임
담원(1)	송의 공평중이 편찬한 책
당유함(1)	유안기가 편찬한 당나라의 유서. 「에문유취」, 「초학기」, 「묵당서초」, 「백첩」이 들어 있음
마하반야경(1)	불경의 반야경의 중의 하나임
백호통(1)	백호통의」라고도 하는데, 경학논문으로서 후한의 반고가 편찬하였다. 오경에 나오는 작(爵), 호(號), 시(諡), 오사(五祀) 등을 해설한 책
법언(1)	정론서로서 한의 양응이 지었다. 「논어(論語)」의 체제를 본떠 성인을 존숭하고 왕도를 논하는 등 유가의 전통사상을 선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법화경(1)	「묘법연화경」이라고도 하며, 후진의 구마라습이 번역하였음
사물감주(1)	
삼포결록(1)	명나라 도종의가 편찬한 유서인 「설부」에 들어 있는 책
상마경(1)	좋은 말을 선택하는 방법 등을 기록한 책
서언고사(1)	중국(中國)의 고사 성어를 분류·해석하고 그 출전(出典)을 밝힌 책.
석림연어(1)	관제의 고증이 상세하게 들어 있는 고증 성격의 서적
석씨요람(1)	
선전습유(1)	도가사상서
설원(1)	춘추전국시대부터 한 대에 이르는 귀문(貴文)과 일사를 수록하였는데, 주로 제자의 언행과 유교의 정치사상, 격언 등을 기록한 책
속신선전(1)	
습유기(1)	중국의 전설을 모은 지괴서(志怪書)인데, 작자는 후진(後晉)시대(10세기)의 왕가(王嘉). 삼황오제(三皇五帝)부터 서진(西晉) 말, 석호(石虎)의 이야기까지 들어 있음
야객총서(1)	송나라의 왕무(王楙)가 편찬한 총서. 이 총서 안에 「석림연어」, 「몽계필담」, 「야객총서」가 들어 있음
양경신기(1)	당 개원(開元) 때의 위술(韋述)이 편찬함. 이 책의 장안(長安) 부분이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수당시대 장안성방의 전문서적임
유괴록(1)	총서 「설부」에 들어 있는 책 중의 하나
이문집(1)	당대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
조정사원(1)	1100년 무렵에 중국 송나라의 목암선경(睦庵善卿)이 편찬한 선불교서적. 각종 선종(禪宗) 관계 서적 가운데 고사와 숙어 2,400여 개를 추려서 그 출전을 밝히고 주석을 붙였음
주자어류(1)	「주자어록」이라고도 함. 주희가 문인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
책부원귀(1)	송조 4대유서 중의 하나이며 그 중 분량이 가장 많음. 책부는 서고(書庫) 원귀는 귀감(龜鑑)이란 뜻으로 전적의 보고임을 의미
천중기(1)	명나라 진요문이 편찬한 책
출요경(1)	대장경 중의 하나로, 앙굴마(鴦掘摩)를 교화한 내용과 행위의 과보에 대하여 설함
태현경(1)	한(漢)나라의 사상가 양웅의 저서이다. 주역(周易)에 비기어 우주만물의 근원을 논하고, 음시(始)·중(中)·종(終)의 삼원(三元)으로써 설명하고 여기에 역법(曆法)을 가미하였음

15세기만 하더라도 「장자(莊子)」를 위시한 도가사상서는 학자들에게 금기시되었다. 성종(1457-1494년)은 시대적으로 하서의 생존기간 직전에 살았는데, 성종이 읽고 싶었지만 경연관들의 반대로 읽지 못한 책은 「장자(莊子)」, 「노자(老子)」, 「열자(列子)」, 「전국책(戰國策)」, 「문한유선(文翰類選)」, 「삼국사(三國史)」 등이었다.[17] 「장자(莊子)」, 「노자(老子)」, 「열자(列子)」 3책은 도가사상의 중심이 되는 책으로, 성종은 도가에 대해 알기 원했으나 신하들이 극구 말렸던 것이다. 그 당시 관료사회의 경직된 사고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성종 때의 학자 최부(崔溥)[18]도 제주도에서 고향으로 오는 길에 표류되어 중국까지 가게 되어 그 여정을 「표해록(漂海錄)」으로 정리하였는데, 중국의 관리인 진훤이 의술, 도교, 불교 이 세 가지 중에서 조선에서는 무엇을 존중하냐고 물으니 최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학을 중히 여기고 의술은 그 다음이며 불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교는 없구요"라고 답하였다.[19] 즉, 실생활에 유용한 의술과 유학만을 중시여기고, 도교는 아예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자(莊子)」 다음으로 인용된 문헌은 「열자(列子)」, 「가어(家語)」, 「회남자(淮南子)」, 「한비자(韓非子)」, 「순자(荀子)」, 「열녀전(列女傳)」, 「노자(老子)」, 「박물지(博物志)」,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포박자(抱朴子)」, 「유양잡조(酉陽雜俎)」 순이다. 제자백가서를 두루 독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책들을 독서하고 그의 시에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유가류(儒家類)인 「문중자(文中子)」, 「공총자(孔叢子)」, 「주자어류(朱子語類)」, 「태현경(太玄經)」, 「법언(法言)」, 「백호통(白虎通)」, 「설원(說苑)」, 제자백가서인 「관자(管子)」, 철학서인 「논형(論衡)」, 고증 성격이 강한 「석림연어(石林燕語)」, 도가사상서인 「선전습유(仙傳拾遺)」, 「신선전(神仙傳)」, 「속신선전(續神仙傳)」, 「운급칠첨(雲級七籤)」, 기이한 이야기를 모은 「술이기(述異記)」, 「습유기(拾遺記)」, 「열선전(列仙傳)」, 「유괴록(幽怪錄)」, 「이문록(異聞集)」, 「목천자전(穆天子傳)」, 불교서적인 「고승전(高僧傳)」, 「출요경(出曜經)」, 「열반경(涅槃經)」, 「법화경(法華經)」, 「마

17) 김중권,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 32집(2005. 12), p.556.

18) 1454(단종 2)~1504(연산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탐진(耽津). 자는 연연(淵淵), 호는 금남(錦南). 나주 출신. 아버지는 진사 택(澤)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1478년(성종 9) 성균관에 들어가 신종호(申從濩)와 더불어 문명을 떨쳤고, 김굉필(金宏弼) 등 동학들과 정분을 두터이 하였다. 1485년 서거정(徐居正) 등과 「동국통감」 편찬에 참여, 그 속의 논(論) 120편의 집필을 담당했는데, 그 논지가 명백하고 정확하다 하여 칭찬을 받았다. 이 해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했으며, 이어 홍문관교리로 임명되고 사가독서하였다. 1487년 제주 등 3읍의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임명되어 제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다음 해 초에 부친상의 기별을 받고 곧 고향으로 급히 오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 이에 43인이 탄 배는 14일 동안 동지나해를 표류하다가 결국 명나라 태주부 임해현(台州府臨海縣)에 도착하였다. 처음 왜구로 오인되어 몰살당할 뻔했으나 어둠을 이용, 빠져나와 조선 관원이라는 것을 간신히 승복시켜 일행은 북경으로 보내졌다가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가 귀국하자 성종은 8,000리 길을 거쳐온 중국 땅에서의 견문을 기술하여 바치도록 명하였다. 이에 그는 남대문 밖에서 8일간 머무르면서 기술했는데 이것이 「금남표해록 錦南漂海錄」 3권이다. 그의 표류기는 우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널리 읽혀졌다. 시호는 충열(忠烈)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최부, 표해록 (조선선비 중국을 표류하다)(파주 : (주)도서출판 보리, 2006), p.168.

하반야경(摩訶般若經)」, 「조정사원(祖庭事苑)」, 지방의 일이나 세시, 풍속의 내용을 담은 「세시잡기(歲時雜記)」, 「양경신기(兩京新記)」, 유서(類書)인 「당유함(唐類函)」, 「야객총서(野客叢書)」, 「책부원귀(册府元龜)」, 중국의 과학기술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 「몽계필담(夢溪筆談)」, 정치, 경제에 관한 토론서인 「염철론(鹽鐵論)」, 그 밖의 「전국책(戰國策)」, 「서언고사(書言故事)」, 「천중기(天中記)」, 「귀곡자(鬼谷子)」, 「계신잡식(癸辛雜識)」도 인용하였다.

그의 문집 중 '가장(家狀)'에서 "천문, 지리, 의약, 복서(卜筮), 음양, 산수(算數), 율려(律呂), 척도(尺度), 예악의 명물, 작록(爵祿)의 품급(品級), 군국의 연혁, 고금의 역년과 궁실, 의복에 대해서도 모두 통달하여 끝까지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20]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다양한 서적들을 독서한 결과로 인해 하서는 실용적인 지식과 넓은 식견을 얻은 것이다.

하서는 자부에 속하는 도가사상서, 불가사상서, 제자백가서, 철학서를 통해 다양한 사고를 접할 수 있었으며, 유서, 세시풍속, 식물학 등을 통해 여러 문화를 접하고, 이러한 책들을 통해 그의 상상력은 날로 확장되었을 것이다. 다양한 독서를 기반으로 한 하서의 글쓰기는 풍성하고 상상력 넘치는 묘사들을 보여준다.

4. 집부(集部)의 분석

〈표 1〉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집부에 속하는 인용문헌은 20종이다. 집부에 속한 인용문헌의 인용횟수와 간략해제를 〈표 5〉로 나타내었다.

하서가 세상을 뜬 지 오랜 후 경종 때(1723년)에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의 시부(詩賦)·책문(策文) 문체(文體)를 보기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조선의 예문관(藝文館)에서는 율곡 이이의 천도책(天道策)과, 민제인의 백마강부(白馬江賦), 하서 김인후의 칠석부(七夕賦)와, 이항복의 읍송거시재복아(泣送去時在腹兒)와 김창흡의 와념소유언(臥念少游言)과 이세정(李世楨)의 답조낙모(答嘲落帽)의 시를 뽑아 올렸다.[21] 하서의 시는 조선 제일의 명문으로 후세까지 그 명성을 떨쳤던 것이다.

그의 글쓰기는 무엇에 기반한 것일까? 집부의 인용문헌을 살펴보면, 「고문진보(古文眞寶)」, 「초사(楚辭)」, 「문선(文選)」, 「세설(世說)」 순으로 인용하였다. 「고문진보(古文眞寶)」 전집과 후집 중에서 한유(16회)의 글, 두보(12회)의 글, 소식(9회)의 글, 왕발(9회)의 글, 주렴계(9회)의 글 등의 순으로 인용하였다. 한유[22]는 대유학자이자 문장가로 여러 작품이 「고문진보(古文眞寶)」

20) '家狀」, 「河西全集」 下, p.173.

21) 『朝鮮王朝實錄』 景宗 3年 1月 甲辰(24日), 卷11, 册41, 277.

22) 자는 퇴지(退之)이고 시호 문공(文公)이다. 중국 당나라의 문학가 겸 유학자로, 산문의 문체개혁(文體改革)을 주장하여 송대 이후 중국 산문문체의 표준이 되고 제재(題材)의 확장을 주는 등 영향을 주었다. 작품은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40권), 「외집(外集)」(10권), 「유문(遺文)」(1권) 등의 문집에 수록되었다.

〈표 5〉 집부에 속한 인용문헌

서명(인용횟수)	간략해제
고문진보(90)	중국의 시문선집(詩文選集)으로 주(周)나라 때부터 송(宋)나라 때에 이르는 고시(古詩)·고문(古文)의 주옥편(珠玉編)을 모아 엮은 책. 전집 10권과 후집 10권으로 되어 있음
초사(70)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굴원의 작품을 비롯하여 송옥, 경차, 회남소산, 동방삭 등의 작품을 한데 묶어 서한의 유향이 편집한 책
문선(33)	「소명문선」이라 하며, 동주 이래 양나라 때까지의 우수한 문학작품을 모아 놓은 것으로 고대 문인들의 필수 교과서가 되기도 함
세설(세설신어)(12)	한말에서 동진말까지 약 200년간 실존했던 제왕과 고관귀족을 비롯하여 문인·학자·현자·스님·부녀자 등 700여명에 달하는 인물들의 독특한 언행과 일화 1,130조를 '덕행'편부터 '구극(仇隙)'편까지 36편으로 나누어 주제별로 수록해 놓은 이야기 모음집
수신기(4)	신화, 전설, 신선들의 이야기, 인물야담 등의 설화를 모은 것으로 중국 지괴소설의 백미로 여겨지는데 원본은 산실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후기에 다시 엮어진 것으로 총 464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음
당시기사(3)	당대의 시인 1150명의 시, 일화, 약전 등을 기록한 책으로 사료적 가치가 큼
산해경(3)	반소설적 지리서임. 「산경」과 「해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리, 역사, 종교, 민족, 신화, 의약, 식물, 광물 등을 서술함. 우리 민족에 관한 기록도 있음
서경잡기(3)	서한의 유사, 장안의 궁실, 고사, 황제의 출행여가 들이 기록되어 있음
속제해기(3)	고대 민간전설을 주로 수록했는데, 일부 불교고사를 개작한 것도 있음
(개원)천보유사(3)	당 개원, 천보 연간 궁중의 잡다한 일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궁중의 풍속과 습관, 귀족들의 사치풍조 등을 기록하여 후세의 소설, 희곡에 영향을 끼쳤음
구지필기(1)	총서 「설부」에 들어 있는 책
극담록(1)	총서 「설부」에 들어 있는 책
동파지림(1)	송나라 소식이 저술한 책
문심조룡(1)	기원전 12-13세기경에서 「삼국지」의 배경이 된 삼국시대를 조금 지난 서기 6세기경까지의 문학 현상을 시대 순으로 관찰하고 연구하여 이론으로 집대성시킨 중국 고대의 문학 이론서
삼국지연의(1)	중국의 4대기서 중 하나로, 진수의 「삼국지(三國志)」에 서술된 위(魏), 촉(蜀), 오(吳) 3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을 나관중이 장회소설(章回小說) 형식으로 재구성한 장편 소설
서역기(1)	「대당서역기」라고 하며, 현장이 저자로 알려져 있으나 현장의 제자인 변기(辯機)가 스승의 지시에 따라 그의 여행기록을 참고하면서 찬술한 것임. 6-7세기 중앙아시아와 인도 각지의 민족, 풍습, 종교, 정치 및 경제 상황을 세밀하게 기록한 책
수신후기(1)	중국 6조시대의 문어체 지괴소설집
승암시화(1)	명 양신(1488-1559)의 저술로, 고증과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책
시인옥설(1)	중국 송(宋)나라 위경지(魏慶之)가 편찬한 시문집(詩文集)으로, 조선에서는 1439년(세종 21)에 청주에서 관목으로 간행
침중기(1)	전기소설(傳奇小說)로, 실의한 서생인 노생(盧生)이 한 도사가 빌려준 베개를 통해 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꿈 속에서 관리사회의 온갖 영욕과 부귀영화를 경험한 후 깨어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다는 내용

에 실려 있다. 한유, 두보, 소식의 글은 그들의 여러 작품을 골고루 인용하였지만, 왕발의 작품의 경우 등왕각서(滕王閣序)[23]만을 9회 인용하였고, 주렴계의 경우 태극도설(太極圖說)을 5회 인

23) 왕발(王勃)은 명문가 출신으로 재능이 뛰어나 성년이 되기도 전에 벼슬을 하였다. 그러나 곧 남들의 시기를 사게 되어 일찍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그로부터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도처를 유랑하였다. 당 고종때인 676년 중양절(9월 9일)에 홍주도독 염공(閻公)이 등왕각에서 주연을 열고 손님들을 청하였는데 마침 왕발이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에 난창을 지나다가 이 연회에 참석하여 즉석에서 이 시와 서를 지었다.

용하였다.

하서는 "젊었을 때에 항상 「초사」와 이백·두보의 작품을 외면서 삼백편(三百篇)의 유의(遺意)가 있음을 즐겨서 육예(六藝)를 익히는 자료로 삼았으며, 그 다음 「한창려집(韓昌黎集)」이나 황산곡·소동파 등의 작품은 힘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24] 실제로 하서는 「초사(楚辭)」를 70회 인용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굴원의 이소를 28회 인용하였다. 또한 「초사」 중 구가(九歌)(11회), 어부사(漁父詞)(5회), 구장(九章)(5회) 등도 인용하였다. 하서가 굴원·이백·두보의 시문을 즐겨 인용한 것은 그들의 시가 시경의 '사무사(思無邪)'정신을 이어받고 있어서일 것이다. 또한 굴원, 이백, 두보,[25] 왕발의 처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였던 모습도 그의 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문선(文選)」도 33회나 인용하였다. 하서의 바로 직전 시기를 살았던 최부의 예를 들면, 표류하다가 중국 땅에 이르러, 중국의 관리가 최부에게 조선의 문장의 체와 격식에 대해서 묻자, "표는 송나라, 원나라의 우수한 작품을 본보기로 하고, 기와 논은 당나라, 송나라의 것을 본보기로 합니다. 의(義)는 오경의 문장을, 의(疑)는 사서의 문장을 참조해서 제목을 정하되 책문도 「문선(文選)」에 올라 있는 것을 본보기로 합니다."[26]라고 대답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 선비들은 글을 지을 때 「사서오경(四書五經)」과 「문선(文選)」, 당, 송, 원나라 문인들의 글을 교본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수신기(搜神記)」, 「당시기사(唐詩記事)」, 「산해경(山海經)」, 「서경잡기(西京雜記)」, 「속제해기(續齊諧記)」,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 「구지필기(仇池筆記)」, 「극담록(劇談錄)」, 「동파지림(東坡志林)」, 「문심조룡(文心雕龍)」,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서역기(西域記)」, 「승암시화(升菴詩話)」, 「시인옥설(詩人玉屑)」, 「침중기(枕中記)」 등의 다양한 문학서적을 인용하였다.

Ⅳ. 하서의 독서관

조선 초기에는 왕권의 확립, 관제 정비, 인재 등용 등의 수요로 인해 사대부들의 독서는 성리학의 경전 및 주석서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선 중기의 학자들은 어떠했을까? 하서와 동시

24) '家壯', 「河西全集」, 下, p.171.

25) 김인후는 두보에 대하여 시성(詩聖)임을 인정하고, 두시가 지니는 충군애민(忠君愛民)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43세 때 그가 기거하던 장성에 백화정을 건립하였는데 이는 두보가 48세 때 촉땅으로 이주하여 성도성 밖 매화나무숲 밑에 아담한 소릉초당(少陵草堂)을 짓고 4년 동안 무려 240 여수의 시를 지으며 백성들의 애환을 시심으로 나타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趙麒. :河西 金麟厚의 杜詩 수용양상." 洌上古典硏究, v.8, 1995, p.33.)

26) 崔溥. 표해록 (조선선비 중국을 표류하다)(파주 : (주)도서출판 보리, 2006), p.120.

대를 살았고 절친한 교분관계에 있었던 퇴계 이황의 학단(學團)의 독서관을 언급해보자. 백담 구봉령[27]이 그의 자제들에게 보낸 편지에 세 가지로 독서의 대상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과거공부를 위한 책과 위기지학을 위한 책,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책들을 들고 있고 있다. 예를 들면, 「고문진보(古文眞寶)」나 「통감(通鑑)」 등과 같은 문장력을 길러 작문에 효험을 줄 수 있는 책들과 「사서(四書)」와 이를 해설한 주자의 글, 그리고 각종 의서류(醫書類)와 같은 것들이다. 퇴계도 역시 위와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독서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퇴계는 군자다운 선비를 지향한 분이었기 때문에 보다 위기지학을 위한 독서에 치력했다. 따라서 그의 독서방향은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성리서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28] 또한 퇴계는 이러한 성리학서 이외의 이단의 학문을 하는 것을 몹시 비판하였다.[29] 한편 16세기의 대표적 유학자인 율곡에 대해서 살펴보면, 율곡은 독서의 순서에 대해 「소학(小學)」, 「대학(大學)」, 「근사록(近思錄」,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오경(五經)」, 「사기(史記)」 순으로 읽으라고 권하면서 선현들의 성리서와 역사서를 읽을 것을 권했다.[30] 16세기 학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소학(小學)」과 성리학의 경전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시기의 독서범위도 성리학의 경전과 의서류, 중국의 사서(史書)에 국한되었다.

17·8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사회는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데, 여러 전란을 겪으면서 중국의 문헌에만 의지하였던 그 이전시기에 비해 청나라를 통해 서학서들이 대거 유입되고 일본의 서적이 부분적으로 유입된다. 또한 전란 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숙종이후부터 활발해진 국내의 간행사업과 필사를 통한 유통의 확산으로 독서의 대상인 책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비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이 때에 대두된 실학자들은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주자서 중심의 독서관과 과거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과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독서를 해야 한다는 독서관을 갖게 되었다. 그로 인해 독서량도 많아지고 책의 범위도 넓어진다. 이 시기 독서관이 변화를 맞게 된 이유는 학문이 과거지학으로 편중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주자학 이외의 다른 사상과

---

27) 1526(중종 21)~1586(선조 19).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경서(景瑞), 호는 백담(柏潭). 문정공(文貞公) 휘(禕)의 8세손이며, 겸(謙)의 아들이다. 7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11세에 아버지마저 죽자 초상집례(初喪執禮)에 있어서 어른을 능가하여 마을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처음 외종조 권팽로(權彭老)에게 《소학》을 배워 문리를 얻고, 1545년 이황(李滉)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1546년(명종 1)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60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봉교(奉敎)를 거쳐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이르고, 1564년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하여 수찬·호조좌랑·병조좌랑을 거쳐, 1567년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581년 대사헌에 오르고, 이듬해 병조참판·형조참판 등을 지냈다. 그는 한때 암행어사로 황해도·충청도 등지에 나가 흉년과 기황(飢荒)으로 어지럽던 민심을 수습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동서의 당쟁이 시작될 무렵이었으나 중립을 지키기에 힘썼으며, 시문에 뛰어나 기대승(奇大升)과 비견되었고, 또한 〈혼천의기 渾天儀記〉를 짓는 등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는 「백담문집」 및 그 속집(續集)이 있다. 시호는 문단(文端)이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8) 이종호, "退溪學團의 讀書論," 退溪學, Vol.5 No.1(1993), p.248.

29) 「退溪集」, '言行錄' 崇正學.

30) 「栗谷集」, 卷15, '學校模範' 讀書章.

학문에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어서 독서의 범위가 좁아졌음을 비판함에 있었다.[31]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서, 하서는 16세기 학자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독서범주를 훨씬 뛰어넘은 다양한 독서, 시대상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독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연보(年譜)를 통해 하서의 독서와 연관된 사실들을 살펴보면,

10세 : 김안국[32]에게 「소학(小學)」을 배웠음

11세 : 「소학(小學)」을 읽으면서, 뜻에 맞는 곳을 만나면 문득 흔연자득하여 새벽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지 않음

13세 : 「시경(詩經)」을 읽으며 '국풍' 등은 천독을 하였음

16세 : 한유(韓愈)의 문장을 읽어 통달하였음

18세 : 송순, 최산두[33]에게 수학하였음

「사서오경(四書五經)」, 제자사(諸子書), 사책(史策)에 이르기까지 깊이 익히고, 천문, 지리, 백가(百家)에 이르러서도 통달하여 막히는 곳이 없음

22세 :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24세 : 성균관에서 퇴계와 함께 강학하고, 학문에 관해 토론함

32세 :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함

36세 : 인종이 갑자기 승하하자 낙향하여 후학을 기르고, 시를 지으며 소일

37세 : 「효경간오발(孝經刊誤跋)」, '유소사(有所思)'와 '조신생사(弔申生辭)를 지음

찾아온 학도들에게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을 가르침. 두 아들들에게 「소학

---

31) 김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서울 : 집문당, 1993), pp.186-260.

32) 1478(성종 9)~1543(중종 38). 조선시대 문신·학자. 본관은 의성. 호는 모재(慕齋). 참봉 연(連)의 아들이며, 정국(正國)의 형이다. 조광조(趙光祖)·기준(奇遵) 등과 함께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도학에 통달하여 지치주의(至治主義)사림파의 선도자가 되었다. 1501년(연산군 7) 생진과에 합격, 1503년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으며, 1517년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어 각 향교에 「소학」을 권하고, 「농서언해 農書諺解」·「잠서언해 蠶書諺解」·「이륜행실도언해 二倫行實圖諺解」·「여씨향약언해 呂氏鄕約諺解」·「정속언해 正俗諺解」 등의 언해서와 「벽온방 辟瘟方」·「창진방 瘡疹方」 등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에 내려가 후학을 가르치며 한가히 지냈다. 사대부출신 관료로서 성리학적 이념에 의한 통치의 강화에 힘썼으며, 중국문화를 수용,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며, 저서로는 「모재집」·「모재가훈 慕齋家訓」·「동몽선습 童蒙先習」 등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3) 1483(성종 14)~1536(중종 31).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양(光陽). 자는 경앙(景仰). 호는 신재(新齋)·농중자(籠中子)·나복산인(蘿逗山人). 아버지는 한성판윤 한영(漢榮)이며, 어머니는 교리 한경회(韓敬澮)의 딸이다. 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을 사숙하였다. 15세 때 「통감강목 通鑑綱目」 80권을 가지고 석굴(石窟)에 들어가서 2년간 수천 번을 읽고 나오니 나뭇잎이 모두 강목의 글자로 보였다 한다. 18세에 상경하여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안국(金安國) 등과 교유하니 당시 사람들이 '낙중군자(洛中君子)'라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에 생원이 되어 25세에서 30세까지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여 도덕·문장으로 이름이 나자, 김인후(金麟厚)·유희춘(柳希春) 등이 찾아와서 글을 배웠다. 1513년(중종 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514년 홍문관저작, 1516년 박사로 승진하고 이듬해 홍문관수찬·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 이조정랑·장령·사인으로 승진되었으나 기묘사화로 동복에 유배되었다가 1533년 풀려나온 뒤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문장에 뛰어나 유성춘(柳成春)·윤구(尹衢)와 함께 '호남삼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저서로는 「신재집 新齋集」이 있다. 동복의 도원서원(道源書院)에 제향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小學)」을 10년 동안 읽도록 함
38세 : 지남을 가르치기 위해 「초사(楚辭)」를 읽다가 비분을 못 이겨 시를 지음
39세 : 「송사(宋史)」를 읽음
40세 : 「대학강의발(大學講義跋」을 지음
43세 : 소쇄원 양산보의 '효부(孝賦)'에 차운함
47세 : 서경덕의 '독역시(讀易詩)'에 차운함
48세 : '태극도설(太極圖說)', '서명(西名)'을 오랫동안 침잠하여 정독하고 '주역관상편(周易 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名事天圖)'를 서술함
49세 : '가례고오(家禮考誤)'를 저술함, 기대승이 선생을 찾아와 질문함.

어린 시절 하서는 전라감사로 부임해 온 김안국에게 「소학(小學)」을 배웠다. 김안국은 조광조와 생각이 같아, 「소학(小學)」과 「향약(鄕約)」을 보급시켜 유교적 도덕을 실천하고, 현량과를 실시하여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재를 등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안국과 마찬가지로 하서도 「소학(小學)」을 중요시 여겼다. 절친한 친구 양산보에게 보낸 시에서도

"우리 회옹(晦翁)선생은 절학(絶學)을 이어받아
위세 곡진한 절목으로 「소학(小學)」을 엮어내어
저 옛날 군사(君師)의 시설(施設)을 회복하고
날로 쓰는 이륜(彝倫)을 소상히 밝히셨고
(중략)
진실로 「소학(小學)」의 도
아니 밝히면
부모가 곧 천지란 걸
뉘 생각하리"[34]

라고 시를 지어 「소학(小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하서는 '증남계헌(贈南季憲)'에서 경서의 독서하는 순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35]

"차례로 「소학(小學)」 다음 「대학(大學)」이 있고 정녕한 「노론(魯論)」과 「제론(齊論)」의 「논어(論語)」 「맹자(孟子)」는 인의를 확충하였고 자사는 유혼을 깨우쳤으니 추서를 염락에서 흥기시키니 큰 도가 천지에 밝이졌다오.

34) '孝賦를 지어', 「河西全集」 上, pp.48-50.
35) 「河西全集」 上, pp.183-184.

따라서 편성된 저 「근사록(近思錄)」도 성문의 우익됨을 알아야하네"

즉, 「소학」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대학」,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근사록(近思錄)」 순서로 읽으라고 권하였다. 하서의 학문은 위기(爲己), 위인(爲人)의 분별을 밝히고 도덕과 인의의 근본을 숭상하며, 기송(記誦), 사장(詞章)의 학문을 비루하게 여겼다. 또한 주자를 스승과 법으로 삼아 강명(講明)하였다.[36] 명종 8년 11월 성균관 직강으로 관직을 제수할 때에, 실록의 저자가 하서에 대해 평하기를 "김인후는 호남 사람으로 젊어서 재명(才名)이 있었고 항상 시주(詩酒)로써 스스로 즐겼다. 과거에 급제하여 오랫동안 경연에서 모시다가 어버이가 늙었다는 이유로 걸군(乞郡)하여 옥과 현감(玉果縣監)이 되었는데, 만기(滿期)가 되기도 전에 관인(官印)을 버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종신할 것을 마음에 두고 문밖에 나가지 않은 지 여러 해였는데, 만년에는 성리학(性理學)을 좋아하고 영달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37]라고 하였다. 2년 후인 명종 10년에도 참찬관 박민헌이 이황과 김인후를 부를 것을 아뢸 때 "김인후는 오직 독서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니, 만약 경연의 자리에 참석시킨다면 틀림없이 돕고 인도하는 공(功)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불렀으나 병이 많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으니, 억지로라도 올라오게 하면 비록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진현하고 강론할 때에 어찌 보탬이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38]라고 하여,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서는 성리학에 전념하며 독서에 몰두하는 이로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서는 51세의 삶 가운데 4년여 동안 벼슬을 하고 여러 관직에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칩거하며 독서와 시문을 저술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실록의 기록과 연보, 인용문헌 분석에서 보듯이, 하서는 깊이 있는 독서와 폭넓은 독서를 병행하였다. 깊이 있는 독서란, 성리학의 경서에 침잠하여 여러 번 읽어 그 뜻을 음미하였으며, 폭 넓은 독서란 경, 사, 자, 집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123종(최소한)을 독서하고 시문을 지었다. 즉 그의 독서관은 성리학의 경서를 중시함으로서 수신과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방대한 저술의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V. 結 論

이상으로 16세기를 살다 간 대유학자 하서 김인후의 독서관을 그의 문집인 「하서전집」의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된다.

---

36) '家狀', 「河西全集」 下, pp.172-173.
37) 『朝鮮王朝實錄』 明宗 8年 11月 甲子(22日), 卷15, 冊20, 174.
38) 『朝鮮王朝實錄』 明宗 10年 11月 戊戌(7日), 卷19, 冊20, 302.

1) 경부에 속하는 19종을 인용하였으며, 그 중에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또한 경서를 읽을 때에는 여러 차례 정독하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였다.

2) 사부에 속하는 26종을 인용하였으며, 그 중에서 「사기(史記)」와 「한서(漢書)」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부터 한나라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역대정사(正史)들을 중점적으로 독서하고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자부에 속하는 58종을 인용하였으며,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접할 수 있었으며, 폭 넓은 독서를 기반으로 한 하서의 글쓰기는 풍성하고 상상력 넘치는 묘사들을 보여준다.

4) 집부에 속하는 20종을 인용하였으며, 「고문진보(古文眞寶)」, 「초사(楚辭)」, 「문선(文選)」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굴원, 이백, 두보, 왕발의 처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였던 모습도 그의 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5) 하서는 16세기 학자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독서범주를 훨씬 뛰어넘은 다양한 독서, 시대상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독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독서관은 성리학의 경서를 중시하므로서 수신과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방대한 저술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참 고 문 헌

〈原典〉

栗谷集
朝鮮王朝實錄
退溪集
河西全集

〈單行本〉

김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서울 : 집문당, 1993.
김장환 등,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4 -문학 하. 서울 : 휴머니스트, 2006.
文淵閣四庫全書(영인). 제3책, 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1983.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출판과 연구자료 집성 -한국편-.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8.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 -한국편-.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1.

오만종 등, 중국 고대 학술의 길잡이 -〈漢書 · 藝文志〉註解.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河西記念事業會, 國譯 河西全集. 신호열 번역. 1988.
심경호 등, 세계의 고전을 읽는다 1-동양 문학편. 서울 : 휴머니스트, 2005.
정재서 등, 세계의 고전을 읽는다 2-동양 교양편. 서울 : 휴머니스트, 2005.
崔溥. 표해록 (조선선비 중국을 표류하다). 파주 : (주)도서출판 보리, 2006.
홍선표 등,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실태. 서울 : 혜안, 2006.

〈정기간행물〉

具仕會, "河西 金麟厚의 文學思想"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제3집 : 財團法人 河西學術財團, (2005).
김상호, "晩翁 徐命瑞의 讀書段階論 比較硏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22(1995), pp.277-297.
김영, "실학파의 독서관," 독서연구, Vol.10(2003), pp.1-18.
김중권,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32집(2005. 12) pp.556-574.
김풍기, "遊齋 李玄錫의 독서관과 그 의미." 洌上古典硏究, Vol.22(2005), pp.57-73.
이종호, "退溪學團의 讀書論,"退溪學, Vol.5, No.1(1993), pp.245-253.

〈학위논문〉

윤보경. 唐代『枕中記』硏究.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전자자료〉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main.jsp〉 [인용 2008. 2월-8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index.jsp〉 [인용 2008. 2월-8월].
영남대학교 도서관 〈http://libs.yu.ac.kr〉 [인용 2008. 7월-8월].

〈졸고를 위해 귀한 자료들을 제공해주신 김상윤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